



KOREAN GLOBAL ALLIANCE MISSION

KGAM은 아시아 다종교권 다문화권의 전략 선교를 목표로 1989년 2월에 설립된 순수 복음주의 선교 기관으로 팀 사역단체입니다. 각 지역별로, 전문 분야별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략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KGAM과 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Rev. Junho Lee, P.O. Box 37, Naiwiang, Muang, Nan, 55000, Thailand
zec0421@empas.com, +66-(0)66-119-8080, +66-(0)84-337-6990

“태국 난Nan에서”

2024. 1.

성탄과 새해



11월부터 준비하여 무려 두 달 동안 계속된 노회의 성탄, 추수감사, 새해 맞이 순회예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메싸난 마을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때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이날 요나단 전도사님이 지휘를 하고 교회 성도들이 특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사실 그곳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찬양 가사를 4절까지 모두 외워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자주 모여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을지 가히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특별한 손님

비전교회에서 두 분의 안수집사님(강건식/김민식)이 '식식선교단'이란 이름으로 열흘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난 지역 학교와 교회를 찾아 복음풍선과 버블공연을 하며 그 안에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번 공연을 위해서 서너 시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방문 때 총 열두 번의 공연을 하였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빴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더욱이 난에서도 되도록 산악 오지 마을을 찾느라 이동 거리가 상당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무려 총 1,200km를 달렸더군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아이들의 눈과 입이 딱 벌어집니다. 풍선 작품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크고 작은 비눗방울이 공중에 피어오르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특히 난노회의 목회자들이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교회가 인근 학교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뭔가 신선한 활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두 집사님이 아주 큰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거듭거듭 감사를 표하시네요. 추티마 전도사님은 우리가 밥 먹고 있는 틈에 마음이 담긴 선물까지 사 와서 덩석 안깁니다.



신기한 주의 뜻



식식선교단이 온다고 할 때부터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시고도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너무 멀어 남들이 꺼리는 곳으로 자꾸 들어가시는 완차이 목사님입니다. 토요일과 주일이면 시간차를 두고 무려 여섯 군데의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데요. 그 중심이 될만한 곳에 최근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 건축까지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수년간 총예산의 80%까지 모았던 겁니다. 저 또한 돕고 싶은 마음에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요.

치앙마이 어느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분의 친구 집사님이 이번에 어디라도 교회 건축에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돈(1,500불)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곳이 있냐고 물어오시는데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그 선생님이 어디에서 마치 과부의 두 렷돈과도 같은 헌금(1,500바트)을 받으셨다고, 건축하는데 보태라네요.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합니다.



점검과 다짐

교박 11년을 타고 있는 제 차는 성능 좋은 픽업트럭입니다. 기계를 잘 모르는 저는 만km를 뒀 때마다 무조건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차를 맡기고 수리가 될 동안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네...



지난 두서 달을 실새없이 달렸더니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식식선교단이 두고 간 한국 약이 효과가 좋습니다. 태국에서 19년을 살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잠시 추스르고 또 달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뜻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일에 신경 너무 세우지 말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아끼고, 좀 더 너그러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제목>

1. 난 노회 목회자들의 역량, 가능성, 발전을 위해서
 2. 노회 임원, 팀 임원으로 맡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난 노회 사무실(비전센터) 건립에 지혜와 합심을 위해서
2024. 1. 19. 이준호 조선희 올림